

제9과 이새의 아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제국

이사야10:24-11:16

10장 24-34절까지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다가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계시된다. 앗수르 제국은 탁월한 지도자와 군사력에 의해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조용히 시작된다. 성서학자 빌트버거는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9절을 히브리시의 진주라고 극찬하였다.

이 시가 담고 있는 핵심사상은 세상 나라는 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나 그 심판의 터 위에 메시아의 주도 아래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의 바탕에는 세상나라는 멸망하고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역사적 결정론(Historic Determination)이 깔려있다.

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앗수르에 의한 유다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 후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시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10:24-34을 읽고 앗수르가 유다 침공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는 과정을 확인해보자.

②. 앗수르제국은 멸망하겠지만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 유다를 속박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제국들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제국을 계시하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다. 유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악한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제국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 계속 출현하는 제국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의 대표적 속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11장 2절-3절을 읽고 메시아의 대표적 속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외의 영(정신, 마음)에 대해 묵상해보자.

③. 제국의 왕처럼 메시아도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메시아의 심판은 제국왕의 심판과 다르다.

11장 4절-5절을 읽고 메시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세상을 판단하는 지 묵상해보자.

④. 메시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샬롬이다.

그 샬롬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샬롬인데 여호와를 아는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의의 상태를 말한다.

11장 6절-9절을 읽고 메시아에 의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 묵상해보자.

⑤. 이어 이사야는 메시아가 세상 곳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계시하며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만민의 구주이심을 증거한다.

10절-16절을 읽고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임을 확인해보자.

⑥. 그런데 이사야는 본시 11장 1절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음 칼럼을 읽고 이사야가 어떤 의미로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로 표현하고 있는 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시대를 열었던 이스라엘 최고 왕이지만, 이새는 평범한 서민이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이새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인성 즉 인자로 오심을 강조한 표현이다. 앗수르가 짐승의 나라라면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인자의 나라다.

이사야의 이새 사상은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니엘서는 우상숭배를 강요받는 박해의 시대에 쓰여진 묵시서다. 다니엘 당시 많은 신자들이 독재자의 위협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왕이 멸망하여 없어질 것을 보게 된다. 이에 다니엘서를 통해 그들은 없어질 자들이니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외친다.

이 때 다니엘은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2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다니엘7:13-14)

여기서 ‘옛적’은 창세전 영원을 말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는 ‘영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인자 같은 이’는 영원의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영원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이며,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은 존재되신 하나님을 담으며, 인간의 시간은 영원과 구별되는 공간(시간)이며, 존재물을 담는다. 영원에 속한 ‘인자 같은 이’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영원의 존재이시다. 이 땅에 오신 성자는 영원의 하나님과 영원의 교제를 하시면서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원으로 가셨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영원’으로 인도하신다(요 14:1-3).

신학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묻는 분야를 ‘기독교론’이라고 하는데 그 중 ‘인자 기독교론’이라는 것이 있다. 인자 기독교론은 다니엘이 본 환상, ‘인자 같은 이’를 근거로 한다. ‘그 사람의 아들’(인자)은 영원(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 오신 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어떤 메시아가 아닌 오직 ‘인자’로 칭하셨다(막 9:9;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로 칭하신 것은 자신을 영원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현세적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자의 나라가 아닌 짐승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짐승의 나라는 결국 멸망한다. 멸망할 나라에서 신자가 품을 수 있는 궁극적 희망은 세상나라에 있지 않고, 영원한 인자의 나라에 있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의 사건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원의 사귀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된다. (요일 1:1-3)